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III 부. 자유를 위한 정책: 변환의 순간

이 책의 I 부는 비시장 방식의 개별적 행동과 협업적 사회적 행동을 진보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새로운 패턴의 창발이 왜 내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정보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II부는 창발적 실행들이 어떻게 개인적 자율성, 민주적 담론, 문화적 창작, 정의를 개선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술적, 규범적 분석을 제시했다. 새로운 사회적 실행의 창발을 설명하고 잠재성을 분석한다고 해도 비시장 방식의 개인적 행동과 협업적 사회적 행동에서 초래된 변화가 필연적으로 안착하거나 인류에게 반드시 혜택을 제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나는 거듭해서 이 점을 언급했다. 새로운 사회적 실행은 정보생산과 교환의 핵심적 수단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정적인 성과는 아니다. 개방적이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균형을 향한 기술적, 경제적 순간을 도래하게 하는 어떤 불가피한 역사적 추동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변환(變換)이 보편화되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발휘한다면 권력과 돈의 광범위한 재분배가 일어날 것이다. 반면, 20세기에 정보, 문화, 통신산업을 지배해 온 할리우드, 음반산업, 통신산업계의 거대기업들은 기득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의 개인들, 기업들, 차별화된 수단을 사용하는 생산자들, 새로운 역량을 갖춘 개인들이 네트워크 정보사회에 참여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제공자들이 변화의 승리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렇지만 산업계 거물들이 새로운 변화가 물고오는 위협들을 잠자코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진보를 향해 움직이는 역사적 추동력을 등에 업은 테크놀로지만으로 산업계 거대기업들의 저항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기존 산업계는 새로운 변화의 충격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원하므로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창발을 규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오직 규제에 맞서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이 성공하는 경우에만 생산방식의 재구성은 자유와 정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적 정보생산과 창발적 네트워크 기반 생산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제도적 생태의 패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투들 가운데 일부는 통신 인프라 규제에 대한 논란이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전투는 “지적재산권”의 광범위한 법적 보호를 둘러싼 팽팽한 대립이었다. 저작권, 특허권, 유사 배타권에 대한 법적 보호는 지난 25년에 걸쳐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양한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할 근거가 되는 제도적 매커니즘이 20세기의 마지막 5년에 걸쳐 확립되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전례없이 장기간으로 확대되었고, 소프트웨어와 영업방법(business methods)도 특허권의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었다. 1995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한 희석화 방지법(Anti-Dilution Act)은 상표권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그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상표권 가치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도메인네임 분쟁절차에서 상표권자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따지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새로 마련된 법적 장치들은 정보 공급자들(information vendors)에게 타인의 접근을 은밀하게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술한 통제방식은 과거에는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1998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은 저작권자가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기술들의 제작과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DMCA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자료들을 이용하는 기술들까지 금지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DMCA 조항과 유사한 기술적 규제들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규제의 손길은 이제 이용자들의 하드웨어조차 저작권 업계가 제시하는 설계 명세서(design specification)를 따르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또 다른 층위에서는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개인용 컴퓨터 장치의 아키텍처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가 확장되고 있고, 전화 회선, 케이블, 무선 주파수 등 물리적 인프라를 강력히 보호하는 재산권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 같은 입법적, 사법적 조치들은 비시장, 비전유적 모델에 기반하는 정보생산이 아니라 전유적 모델의 정보생산에 적합한 제도적 생태를 조성을 돕는다. 일련의 규제 조치들이 통합적 효과에 힘입어 2차 인클로저(second enclosure movement)가 등장했다.¹ 새로운 인클로저의 추동력은 무엇일까? 탐욕과 지대추구가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인클로저 운동의 구성요소들은 나름대로 좋은 의도의 사법적, 규제적 선택에 근거하고 있다. 2차 인클로저를 가능하게 뒷받침하는 사법적, 규제적 선택들은 특정한 혁신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사법적, 규제적 선택 자체는 혁신 개념과 배타권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인클로저 운동의 근거에 자리잡은 혁신의 개념은 — 매스 미디어 형태의 콘텐츠, 음악, 영화, 제약산업 등의 혁신 시스템에 초점을 둔다— 배타권 확보를 극히 중요하게 여긴다. 배타권은 문화적 현저성을 갖춘 정보생산의 기반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인클로저의 혁신 개념은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 진행되는 공유재 기반의 비시장 생산을 미심쩍은 눈으로 보면서 해악적 요소로 취급한다.

2차 인클로저의 진행을 주목한 다양한 학문적 견해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쏟아졌다.² 다양한 비평들은 지난 10년간 동안 판례들과 법률들이 소유권자에게 부여한 배타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종전에는 사법적 차원에서 배타권을 제한하거나, 다양한 이용형태에 그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식으로 정보 접근권(access to information)이 보장되었다.³ 그러나 배타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법령들이 만들어지자 인센티브와 정보 접근권의 사이에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균형이 —특히 저작권 분야에서— 무너졌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다. 여기에서는 2차 인클로저에 대한 비평을 반복하거나 전유권의 범위를 확대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규제적 조치들을 전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변화의 양상을 디지털 환경의 제도적 생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투들의 일부로 이해한다. “제도적 생태”(institutional ecology)라는

¹ 2차 인클로저 문제의 분석에 상당히 공헌한 논문으로는 James Boyle, “The Second Enclosure Movemen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Public Domain,”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6 (Winter-Spring 2003): 33–74.

² 과도한 배타권 부여를 회의적 시각에서 분석한 초기의 법학 문헌들은 상표권에 대한 랄프 브라운(Ralph Brown), 1976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을 이루었던 조항들을 분석한 벤자민 카플란(Benjamin Kaplan), 그리고 여러 산업계에서 저작권의 경제적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한 스테판 브레이어(Stephen Breyer)의 연구 등이다. 퍼블릭도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간곡한 권고를 담은 데이비드 렌지(David Lange)의 논문, 컴퓨터 프로그램에 저작권 적용을 체계적으로 비평한 파멜라 사무엘슨(Pamela Samuelson), 저작권 입법의 정치경제학과 퍼블릭 도메인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제시카 리트만(Jessica Litman), 공정이용에 대해 이론적 탐색을 진행했던 윌리엄 피셔(William Fisher)를 제외하고는 1980년대의 법학 논문들은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1990년대에는 인클로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법학 논문들이 증가했다. 사무엘슨은 디지털 재화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했고 리트만은 선견지명이 갖든 고찰을 통해서 디지털 저작권 문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피터 자스지(Peter Jaszi)는 로맨틱 저자(romantic author)라는 개념을 논박했다. 레이 패터슨(Ray Patterson)은 이용자 중심 관점(user-centric view)의 저작권을 발전시켰다. 다이안 짐머만(Diane Zimmerman)은 저작권과 수정헌법 1조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토론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제임스 보일(James Boyle)은 수그러들지 않는 재산권화(propertization)를 향한 박식한 비판을 이론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했다. 니바 엘킨 코렌(Niva Elkin Koren)은 저작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연구했다. 케이트 아오키(Keith Aoki)는 상표권, 특허권,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관련성에 주목했고 줄리 코헨(Julie Cohen)은 기술적 보호시스템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초기 연구를 내놓았다. 에벤 모글렌(Eben Moglen)은 프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주장의 근거를 가차 없이 반박했다. 레베카 에이젠버그(Rebecca Eisenberg) 그리고 최근에는 아티 레이(Arti Rai)는 바이오의약 분야의 혁신 연구에 사용되는 도구(tools)에 대한 특허권을 연구했다. 피셔, 레식, 리트만, 시바 바이디히아나단(Siva Vaidhyanathan)은 거의 10년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의 글과 발표를 통해서 인클로저 운동이 많은 한계점을 노출했음을 지적했다. 레식과 바이디히아나단은 특히 제도적 전투와 네트워크 환경의 자유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³ 이를테면 법적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 privilege) 등을 의미한다. (윤긴이)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밝혀두고 싶은 점은 제도가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인과관계 메커니즘은 경제 모델들이 의례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제도는 기술개발 수준, 행동의 문화적 개념, 사회적 실행과 상호작용을 펼친다. 사회적 실행이란 개인들의 욕구를 극대화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동기들에 근거한 행동들(현재의 실행들과 창발하는 실행)을 널리 포함한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생태에서 제도는 — 법이 물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른 매개변수들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제도는 기술, 사회적 행동, 시장적 행동과 함께 공진화한다. 공진화 과정은 상대적 안정기로 이어지기 마련지만 외부에서 유래하는 충격이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상변이(phase shift)에서 비롯된 불균형기(period of disequilibrium)에 의해서 중단된다. 불균형기에 접어들면 다양한 변수들은 조화를 이루지 않고, 행동패턴, 기술, 제도로 정착된 행동을 두고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벌인다. 이 과정을 거쳐 다양한 변수들이 일관되게 정리되면 상대적 안정감과 응집성으로 채워진 시기가 다시 도래한다.⁴

11장에서는 전유권, 시장 기반 정보생산 모델과 개인적, 사회적 정보생산, 동등생산 모델이 어떻게 경쟁을 펼치면서 디지털 네트워크의 제도적 생태를 형성하는가를 살펴보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겠다. 정책 선택의 순간이 임박하자 선진국들 대부분은 공유재, 공유 서비스 기반 생산모델이 아닌 전유권, 배타권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상품의 생산 모델을 택했다. 이 정책적 경향은 미국에서 어떤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든, 유럽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나든지 무관하게 지속되었다. 그러나 기술궤적(technology trajectory), 사회적 실행, 문화적 이해는 때로는 처음에 의도했던 규제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상충하는 생산모델들이 모종의 합의과정을 거쳐 적절한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정보·지식·문화의 생산과 소비방식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다. 새로운 생산방식은 적어도 수 십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장에서는 정보생산의 정치 경제학에서 일어난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선진국들의 정책적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다루겠다.

⁴ 기술혁신에 의해 발생하는 변화들은 기술적 불연속성을 가져와 현재의 안정 상태를 중단시키는 단속적 불균형기(斷續的 punctuated disequilibrium)를 초래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형성되면 불균형기는 종결된다. (웁킨이)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